

지역 소식통

정읍시 확대간부회의 열어

정읍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월 중에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업무를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 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 등 현안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유 시장은 "지난주 학교 개학과 타지역의 확진자 증가 소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은 물론 시설의 철저한 방역과 관리를 통해 단 한 건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앞으로도 산발적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며 우리 사회에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유념하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축사관리 당부

정읍시가 이른 더위로 인한 가축 폐해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올해 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온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5월 평균 기온이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우와 젖소, 돼지, 가금 등 더위에 약하므로 적정한 온도 관리 등 농가의 관리 방법 개선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가축에게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이고, 광물질과 시원한 물을 급여하면 체수분과 미량원소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 비타민과 유기산제 등을 사료에 적절히 섞어 먹이는 것도 가축의 더위 스트레스를 완화 시키는 방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밥상 브랜드 강화 시동

사업설명회 갖고 중장기 지역 대표먹거리 개발 계획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료 · 차별화된 레시피 흥미유도

고창군이 지난해에 이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먹거리 개발(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에 시동을 걸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의 2020년 사업 설명회가 전문컨설팅 업체와 지역 외식업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은 브랜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고창군의 식문화와 역사자원을 활용한 중장기 지역 대표 밥상 계획 등이 마련된다.

또 외식업체 맞춤형 고급 역량강화 교육, 차별화된 콘셉트로 대중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가 추진된다.

특히 '고창밥상' 참여 외식업체만의 계절별 특별 레시피 보급을 통해 누구든 참여 외식업체를 방문하면 다른 업체의 차별화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땅(地), 물(水), 불(火)을 주제로 하는 고창군의 대표 맛



25일 '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의 2020년 사업 설명회가 전문컨설팅 업체와 지역 외식업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첫 수도 고창밥상'을 알려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군 농어촌식품과 이영운 과장은 "신선하고 풍부한 식재료 조달이 최대 장점인 고창의 대표 먹거리 개발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예정이다"며 "맛은 물론, 재미난 이야기까지 숨어 있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밥상'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은 지난해 10월 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에 착수해 최근 격포-위도간 해역에 실시간 기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파고부이를 설치하고 시험운영 중이다.

격포-위도간 해역 기상관측장비 설치

부안군, 어업인 안전조업 · 여객선 결항률 최소화 기여 기대

부안군은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도모와 지역 어업인의 안전조업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상관측장비(이하 파고부이) 설치사업에 착수해 최근 격포-위도간 해역에 실시간 기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파고부이를 설치하고 시험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파고부이는 실시간으로 해당 해역의 파고측정이 가능한 장비로서 측정되는 기상자료는 5G 무선 통신방식으로 기상청 등 관련기관에 제공돼 각종 기상특보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특히 해당 해역의 여객선 운항과 안전조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해상 안전을 위한 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파고부이의 안정적 운영과 파손·유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위탁 인건 해상에 서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왕등도 사이의 기상관측장비의 기상 자료를 기상특보 발효 등에 활용했으나 이번에 설치된 파고부이는 상대적으로 내만권인 위도-격포간 해역에 위치해 보다 정확한 자료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설치된 파고부이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해당 장비를 전주기상지청에 양여(관리전환)할 계획으로 파고부이 등 해상관측장비에 정당한 국가기관인 기상청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이 설치된 파고부이의 기상자료는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여객선 결항률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파고부이의 안정적 운영과 파손·유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위탁 인건 해상에 서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개암사 관광자원화 기반조성 준공 '눈앞'

부안군은 능가산 천년사찰 개암사 탐방객과 2020 세계 잼버리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쾌적한 체험 환경 및 한국 사찰문화체험 증진을 위해 개암사 관광자원화 기반조성사업을 지난해 1월에 시작하여 올해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준공사업으로 국비 2.5억원을 지원받아 총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985㎡에 주차대수 총56대로 대형 4대, 소형 52대(일반 40, 장애인5, 여성7)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다. 백제의 고찰인 개암사 및 개암사~우금산성~만석동 탐방로가 시작되는 지역으로 연간 10만여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명소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이 무질서하고, 특히 대형버스의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 탐방객 안전사고등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유역내 위치하고 있으나 불법영업행위로 인하여 수십년 동안 개암사를 방문하는 탐방객에 불쾌감을 주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이에 개암사주장과 인접한 지역의 경작지 및 노후주택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개암사지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 노후 주택 등으로 훼손된 문화재 역사문화 환경을 복원하여 탐방객들과 2020 잼버리 템플스테이 참여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사찰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쾌적한 탐방환경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AI 대비 선제적 방역 대책 추진

울거울 국내유입 가능성 커

5개월간 소독시설 등 점검

정읍시가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급증으로 AI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일찌감치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시는 울거울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겨울철 대비 선제적 방역 대책과 방역수칙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식품부(검역본부)와 9월까지 219호의 가금 농가 축사시설에 대한

방역 시설과 소독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출입 인원·차량 통제 등 방역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닭 3,000수 이상 오리 2,000수 이상, 기타 가금 2,000수 이상의 가금을 사육하는 농가 219곳이다. 점검반은 가금 농가 출입 시 방역복 착용을 위한 전실 설치·관리 여부와 울타리, 그물망 등 방역 시설 이상 유무, CCTV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점검(5월~7월)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마흡 사항에 대해서

는 농가로부터 확인서 및 정비·보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징구한다.

1차 점검 결과에 따른 마흡 농가는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재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개선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방역·소독 시설 마흡 농가에 대한 시정(정비·보수)명령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 결과와 내용은 모두 국가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필히 입력 전산 등을 통해 사후 관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역사문화관광수도 준비해야"

유기상 고창군수가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에 힘입어 앞으로 강조되는 역사문화관광수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오전 유기상 고창군수가 무장읍성 동헌에서 국·과·관·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현안회의를 열었다. 이는

유 군수 취임 이후 고창읍성 동헌, 취석정, 석양정 이후 지역 역사문화 유적지에서 5번째로 열렸다.

무장읍성은 1417년 무장진의 병마사 김저래가 쌓은 평지성이다. 조선시대 읍성들은 그 유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무장읍성은 확실한 연혁을 갖고

있어 학술적·역사적 중요성이 크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창지역과 흥덕의 관아건물이 불탄 것과는 달리, 무장관아는 극적으로 화를 면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팽박하는 농민들과 서리들까지 포괄하는 민중혁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